

후지보 - 중국에 유리한 합판으로

편성지 염공장 신설

후지보는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상사(桑莎)집단(英名 : 썬 쉘 그룹)과의 합판(合辦)으로 중국 산둥성 제성시(諸城市) 경제개발구에 편성포의 염색가공공장을 신설하였다.

이 합판회사는 제성 · 후지보 의료(衣料)유한공사로서 자본금은 700만달러이다. 투자비율은 썬 쉘 그룹의 편성포 봉제회사인 제성창유침직(諸城創裕針織)이 75%, 미국법인인 미국 썬 쉘이 15%, 후지보가 10%를 투자하고 있다. 후지보는 5명의 임원 중 부이사장 1명과 임원 1명으로 2명의 임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 공장은 2004년 1월부터 가동된다.

공장의 부지면적은 8만평방미터에 공장은 연면적 2만평방미터로서, 상압(常壓)과 고압(高壓)의 액류염색기(液流染色機)를 구비하고 편성포를 침염하게 된다. 종업원은 150 200명 정도 될 것이며, 월 생산능력은 300톤부터 시작하여 3 5년 후에는 5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후지보는 당초에는 300톤 중 1/3인 100톤을 후지보의 의료품(衣料品)사업부가 주로 외의용 편성포로 활용할 예정이며, 증설후에는 150 200톤으로 후지보의 활용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후지보가 담당하게 되는 기술지도는 편성포 염색 자회사인 후지보 와까야마 공장이 맡게 될 것이다.

중국에 있는 편성포 염색공장 중, 일본의 방적회사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장은, 닛신보의 월간 100톤 가공능력이 있는 항주일면(抗州一綿)과 카네보섬유의 150톤 가공능력의 상하이화중(上海華鐘) 레나운 니트, 콘도 방적소의 청도등화(靑島藤華)의 3개 공장뿐이었는데, 후지보의 300톤 가공능력의 제

성후지보 의료유한공사가 추가되었다. 이들 공장은 중국이 염색가공기술은 방적이나 제포기술과는 달리 가장 뒤떨어져 있으며, 단시일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일본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자, 가장 적은 투자비율에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처분비율도 가장 유리하게 할애해 줌으로써, 생산기술을 비롯하여 고품질로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거래망 등을 구축하고자 적극적으로 일본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 매우 유리한 합판조건을 받아내고 있다.